

벤투호의 마지막 경기... '운명의 한·일전'

오늘 오후 7시30분 E-1 챔피언십 최종 3차전 공격수 나상호 "이겨서 우승한다는 생각뿐"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최종전에서 일본과 '우승 결정전'을 펼치게 된 벤투호는 이겨서 우승한다는 생각 밖에 없으며 의지를 불태웠다.

대표팀 공격수 나상호(FC도쿄)는 17일 부산 아시아드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훈련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처음부터 우승이 목표였고, 마지막 경기가 한일전이기도 한 만큼 꼭 이겨

서 우승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18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일본과의 최종 3차전은 남자부 우승팀이 가려질 경기다.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승점 6으로 선두를 달려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이 정상에 오른다.

한국에는 대회 남자부 3연패 달성, 파울루 벤투 감독 부임 이후 첫 국제

대회 우승, 최초의 개최국 우승 등 여러 기록이 달린 경기다.

최근 다소 아쉬운 경기력이 이어진 벤투호가 분위기를 끌어 올릴 기회이기도 하다.

나상호는 "이번 대회 들어 세트피스에서만 득점이 나왔다. 저도 중국전(15일)에서 많은 기회를 놓쳐 아쉽다"면서 "마무리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려고 한다. 과감하게 슈팅해서 득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들이 조급하면 오히려 더 골이 안 들어갈 수 있다고 조언하더라. 침착하게 하다 보면 필드골이 터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측면 수비수 김태환(울산) 역시 "선수들 모두가 한일전은 이겨야 한다는 생각뿐"이라며 "제 역할은 공격수들이 골을 넣게 최대한 돕는 거다. 일본전에 출전한다면 크로스에 더욱 신경 써서 도움을 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일본은 패스를 잘하고 좋은 팀이지만, 약점이 있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팀"이라며 "단단히 준비했고, 분석도 한 만큼 경기장에서 펼쳐 보인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연합뉴스



박항서 베트남 U-23 축구대표팀 감독이 17일 오전 경남 통영시 통영체육관에서 동계 훈련을 앞두고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항서 베트남 감독 "도전은 감독의 인생"

베트남 대표팀 이끌고 통영 전지훈련 "단순한 휴식이 아닌 재충전의 시간"

"1년만 버티보자고 했던 게 여기까지 왔네요. 지난 일들은 추억일 뿐이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감독의 인생이니까요."

베트남 축구의 역사는 이제 박항서(60) 감독 부임 이전과 이후로 양분되게 됐다.

2017년 10월 박항서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베트남 축구 역사에 수 많은 이정표가 세워졌다.

2018년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준우승을 시작으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역대 처음으로 4강 진출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에는 10년 만에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우승에 성공하던 이번 달에는 베트남 축구 역사상 60년 만에 동남아시아

연맹(SEA) 정상에 오르는 쾌거까지 달성했다.

베트남 축구 역사를 때면 새롭게 바꾸는 박 감독은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자리매김 했다.

이런 가운데 박 감독은 동남아시아 게임을 끝낸 뒤 선수들을 이끌고 14~22일까지 일정으로 통영 전지훈련에 나섰다.

지친 선수들에게 분위기 전환과 재충전의 기회도 주고 내년 1월 태국에서 열리는 2019 AFC U-23 챔피언십 준비가 이번 전지훈련의 목표다.

박 감독은 17일 통영실내체육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동남아시아 게임을 마치고 선수들의 체력 회복과 부상 치료를 위해 통영을 찾았다"라며 "항상 베트남 선수들을 환영해주는 팬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광현 미국 도착... 세인트루이스와 협상

구단 관계자 "김광현 영입 과정은 극비로 진행 중" NL 최고 명문구단... 오승환도 2016~2017년 활약

한국 야구 좌완 에이스 김광현(31·사진)이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NL) 중부지구 강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목적은 확실하다.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김광현에게 입단 제의를 하며 '메디컬테스트'를 요청했다.

김광현은 출국 전 "최종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다. 출국 사실이 알려지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나 세인트루이스와의 협상은 속도를 내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구단 관계자는 17일 "김광현 영입은 극비리에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테스트를 제안한 건 이미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됐다는 의미다.

국내와 메이저리그를 두루 살피는 한 에이전트는 "세인트루이스 메디컬테스트 통과하면, 구단에서 뛰는 두 번째 한국 선수가 된다."

당시 오승환은 1+1년 최대 1100만달러에 계약했다. 보장금액과 인센티브가 거의 50대 50 수준 계약이었다. 연합뉴스

물론 김광현 측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시카고 컵스 등 현지 언론은 "김광현 영입에 관심을 보인 구단"으로 꼽은 팀들과의 협상 장구도 열여덟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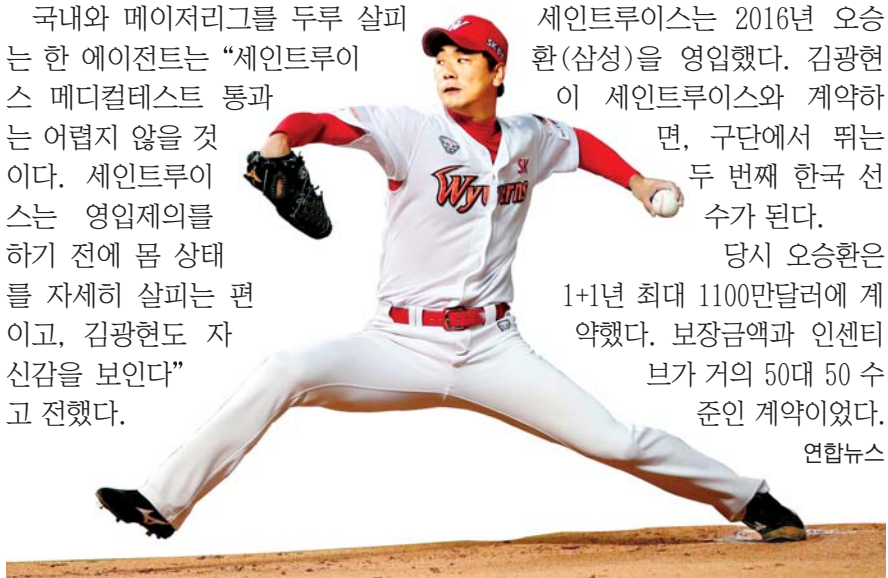
선발진 보강이 절실한 세인트루이스는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으로 미국 진출을 노리는 김광현을 '영입 리스트'에 올렸고,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메디컬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세인트루이스는 에이스 잭 플래허티, 마이클 마이컬러스, 다코타 허드슨 등 꽤 견고한 1~3선발을 갖췄다.

하지만 마이클 와카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으로 뉴욕 메츠로 떠났고, 애덤 웨인라이트의 불펜 전환 가능성도 제기돼 선발진에 공백이 생겼다.

세인트루이스는 2016년 오승환(삼성)을 영입했다. 김광현이 세인트루이스와 계약하면, 구단에서 뛰는 두 번째 한국 선수가 된다.

당시 오승환은 1+1년 최대 1100만달러에 계약했다. 보장금액과 인센티브가 거의 50대 50 수준 계약이었다. 연합뉴스



합차계 출발하는 이의진 17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에서 열린 FIS 극동컵 크로스컨트리대회 여자 5km 프리스타일 경기에서 이의진이 합차계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재 '주목할 선수' 선정 "첫 우승 조만간 나올 것"

임성재(21)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2020년 주목할 선수 30명' 중 한 명으로 뽑혔다.

PGA 투어는 17일 홈페이지에서

2018~2019시즌 PGA 투어 신인상을 차지한 임성재가 2020년에도 활약할 것이라며 이같이 선정했다.

임성재가 2019~2020시즌도 샌더스 팜스 챔피언십 2위, 조조 챔피언십 공동 3위 등 좋은 기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첫 PGA 투어 우승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토틀름 '에이스' 손흥민 케인·알리보다 잘했다

손흥민이 올 시즌 전반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틀름의 '에이스'로 인정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 산하 연구기관인 국제스포츠연구센터(CIES)는 17일(한국시간) 2019~2020시즌 유럽 5대 리그(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소속 선수들의 경기력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손흥민은 100점 만점에 82점으로 토틀름 선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전반기 'MVP'로 인정 받았다.

팀의 주포로 꼽히는 해리 케인(75점), 공격형 미드필더 델리 알리(79점)를 제쳤다.

CIES는 축구 통계 전문 업체 옵타스포츠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각 선수의 능력치를 ▶볼 소유권 회복 ▶볼 배급 ▶돌파 ▶득점 기회 창출 ▶슈팅 ▶상대 공격 저지 6개 부문에 걸쳐 지표화 했다.

손흥민은 득점 기회 창출(85점)과 슈팅(72점), 돌파(81점) 3개 부문에서 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볼 배급에서는 53점을 받았고, 수비수에게 중요한 지표인 볼 소유권 회복, 상대공격 저지는 10점 이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휴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